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1)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2)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3)	(활동지) 가장 인상 깊은 구절
<p>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꼈을 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에는 주인공이 도라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기분 나쁜 돌덩어리'라고 표현되어 사랑의 감정이 맞는 것인지 헷갈렸다.</p>	<p>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보다 보통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196쪽에서 돈을 훔친 아이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한 것을 보고, 선천적으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보다 그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p>	<p>곤이와 주인공이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에게 안좋은 것이 있었던 인연이 점차 좋은 친구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했다.</p>	<p>몸이 더웠다. 맥박이 귀밑에서 팍팍거렸다. 손끝에서도 발가락 끝에서도. 작은 벌레들이 몸을 기어 다니는 것처럼 간질간질했다.</p>
<p>철사형이라는 인물에 대해 왜 작가는 얼굴과 내면이 비슷하지 않는 인물을 그로 설정했을까? 철사형이 천사같은 얼굴을 했지만 잔인한 행동을 하는 인물로 나오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김.</p>	<p>감정을 느끼지 못하던 주인공이 많은 사람들 중 왜 도라라는 인물을 통해 조금이나마 감정을 알게 되었을까.</p>	<p>엄마가 주인공에게 아몬드를 먹인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편도체의 이상 때문이었을까. 좀 더 깊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p>	<p>"두려움도 아픔고 죄책감도 다 못느꼈으면 좋겠어"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기엔 너 너무 감정이 풍부하거든"</p>
<p>질문: 윤교수가 아내에게 자신의 자식인 곤이 대신 어릴적 곤이를 닮은 윤재를 보여준게 옳은 일인가? 배경: 윤재가 곤이의 집에 갔을 때 곤이가 윤재의 이야기를 듣고 흐느끼는 것과 윤재가 곤이에게 자신이 오해한 것을 사과하려 갈 때 윤재가 '네 엄마 앞에서 아들이 착해서'라고 생각해서 과연 이러한 행동이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p>	<p>윤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곤이에게 흥미가 있었을까? 배경: 이 책에는 곤이 뿐만 아니라 윤교수, 심박사, 학교 친구들 등 사람들이 많은데 윤재는 곤이의 어떤 점에 이끌려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p>	<p>내가 공감하는 것은 진짜 공감일까? 배경: 아래에 있는 구절을 읽은 후 나의 공감도 쉽게 잊히는 가짜 공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p>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 쉽게 잊었다. 내가 이래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p>
<p>윤재의 담임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엄마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했어야만 했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걸까</p>	<p>남의 고통이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 꼭 불행한 일인가? 곤이가 말한 것 같이 부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p>	<p>윤재를 '예쁜 괴물'이라고 칭한 할머니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p>	<p>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 쉽게 잊었다.</p>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1)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2)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3)	(활동지) 가장 인상 깊은 구절
<p>윤재가 감정을 되찾게 된건 언제부터 누구로 인한 것이었을까?</p>	<p>작가는 윤재와 비슷하면서도 대비되는 철사를 등장시켰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p>	<p>곤이의 행동은 충분히 불건전한 행동이었는데, 그런 행동들을 책 속에서는 약간 정당화 시킨 것은 아닌가?</p>	<p>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어쩌면 그냥 남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란 것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p>
<p>윤재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과한에 의해 습격을 받을 때 지켜만 보던 사람들도 어찌 보면 윤재와 같은 알렉시티미아를 앓고 있다고 하여도 되지 않을까? 그저 그 남자의 기세(?)에 압도되어 눈앞에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만 보았다는 것은 결국 윤재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표현 방법이 다를 뿐 결과는 같다. 말을 하지 않은 윤재와 달리 두려움이란 말로 포장하여 달라 보이는 것뿐이라 생각한다.</p>	<p>윤재의 사정을 적나라하게 반에서 밝힌 젊은 여자선생님의 태도는 어떻게 판단되어야 할까? 두 가지 의견이 떠오른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가 의도치 않게 벌일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하고 서투른 배려로 판단해야 할까? 아니면 선생님은 배려(역지사지)에 대한, 그러니까 남에 대한 공감을 느끼지 못하여 선생님으로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일까? (모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윤재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하나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 알렉시티미아 초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윤재가 판단하는 기준에 맡겨야 할까? 선생님이 상담을 하며 윤재를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이것 또한 윤재가 평범해 보이기 위해 학습을 한 듯 가슴에서 나온 말이 아닌 알고리즘을 통해 나온 학습된 말이 아닐까?</p>	<p>가해자인 남자의 일기장에 '오늘 누구든지 웃고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라는 말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과연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남자가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자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내버려둔 사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 남자를 떠난 가족의 잘못일까요?</p>	<p>1. 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 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2. 말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3. 자란다는 건 변한다는 뜻인가요.</p>
<p>도난 사건의 진범은 어떤 처벌을 받았고, 왜 아이들은 그 아이의 잘못보다 곤이에게 더 집중하는 걸까? 곤이에게 미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p>	<p>워든 여러 번 반복하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한 이유가 뭘까? 윤재가 이것을 재미있는 놀이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소개했는데, 곤이 그런 말을 한 이유랑,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p>	<p>철사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장면은 왜 있는 걸까? 불필요한 장면인 것 같아서.</p>	<p>내가 알던 모든 게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P.172)</p>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1)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2)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3)	(활동지) 가장 인상 깊은 구절
<p>알렉시티미아는 세계에서 얼마 정도 분포하고 있을까?</p> <p>배경 : '로봇이라며? 너 진짜 로봇이냐. 로봇 주제에 조연질이냐? ...' 책 속에서 곤이가 주인공에게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이 종종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읽고 의문이 들었다. 질문 : 감정이 없으면 로봇일까? 사람과 로봇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미래에 감정로봇이 사람의 외형을 가지게 되고 문화를 배운다면, 그것은 로봇일까, 사람일까?</p>	<p>후천적인 훈련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p> <p>배경 : 주인공은 처음에 아저씨가 식물인간이 된 엄마에게 말을 건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못 듣는다며 거부한다. 그렇지만 나중에 도와와 함께 찾아갔을 때는 책방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질문 :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감정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진실된 의미를 가지지 못해서일까?</p>	<p>곤이는 왜 주인공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 걸까?</p> <p>배경 : 아저씨가 TV로 아파하는 불쌍한 아이를 보며 무표정하게 있던 모습, 뒤 돌아 주인공을 보며 웃는 것 등의 주인공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고, 공감한다면 쉽게 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 한 구절에서 질문이 생겼다. 질문 : 감정이 있다는 것이 인간의 하나의 전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어쩌면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이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임과 동시에 어떤 상황적 조건(예를 들어 일부러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상황이라든가, 자신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뒷받침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독립적이거나 이타적인 것이 아닐까?</p>	<p>남들과 비슷하다는 건 뭘까. 사람은 다 다른데 누굴 기준으로 잡지?</p> <p>136p. -기분 나쁘지도 않냐. 네 할머니랑 엄마 생각 안 나냐고. -생각나. 많이. 자주.</p> <p>179p. -사랑. -그게 뭔데? -예쁨의 발견.</p> <p>207p. 내가 너한테 가까이 다가가니까 심장이 기뻐서 박수치는 거야.</p> <p>223p. 언어라는 건 그랬다.</p> <p>245p.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p>
<p>왜 곤이아빠는 곤이와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나요? 둘이 대화를 안해서</p>	<p>곤이아빠는 왜 아내에게 곤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나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짜 아들을 데리고 가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p>	<p>왜 해피엔딩일까요? 비현실적이어서</p>	<p>내 머리는 형편없었지만 내 영혼마저 타락하지 않은 건 양쪽에서 내 손을 맞잡은 두 손의 온기 덕이었다.</p>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1)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2)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3)	(활동지) 가장 인상 깊은 구절
<p>곤이는 '자신의 인생에 시멘트를 찍 들이붓고 그 위에 자기가 설계한 새 건물을 지을 생각만 해. 난 그런 애가 아닌데.....!' 라며 친부인 윤 교수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다. 심 박사의 말에 따르면 윤 교수는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신조를 평생 지켜 온 사람이라고 했다. 윤 교수에게 곤이는 '남'일까? ('공감'과 pg 90의 '평범함'에 초점을 두고)</p>	<p>아름다운 것들이 시들어 가는 상상이 돼서. pg 151 아름다운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일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 만.....그렇다면 '시들어 간다' 는건 재시작일까 아니면 곤이의 생각(즐거워 않고 보기 싫음)처럼 흥미가 떨어지는 것일까?(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 말고 자신의 삶의 적용으로 말씀해 주세요.)</p>	<p>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다.' pg 245 -----마지막 문장으로 보아, 주인공은 이미 감각이 주는 본능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p>	<p>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 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썼을까. 도와 달라는 손짓이었을까 아니면 깊은 원망이었을까.</p>
<p>감정이 없는 선운재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포를 느끼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주위에서 살인자를 말리는 사람들은 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p>	<p>문제가 일탈을 저지르는 건, 반 아이들이 그 사람을 '문제아'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걸까, 아니면 단순히 그 사람 자체만의 문제에서 비롯된걸까. 곤이가 수학여행 때 수학여행 회비를 훔쳤다고 의심 받는 부분에서 궁금해졌다.</p>	<p>선운재는 곤이가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말을 하면 자신을 때릴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을 따라했을까?</p>	<p>사랑이 뭐냐는 엄마의 질문에 할머니가 '예쁨의 발견'이라고 대답한 부분.</p>
<p>책 초반에 등장했던 주인공에 대한 슈퍼 아저씨의 대처 방법을 이해해줄 수 있을까? 주인공이 감정 없이 너무나 덤덤하게 얘기했기에 믿지 않은 아저씨가 이해 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을지 모른다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아저씨의 행동이 이해 되지 않았다.</p>	<p>할머니가 엄마와 주인공과 함께 살게 된 이유는 엄마 때문이었을까 주인공 때문이었을까. 손자를 위해서 인지 아니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일까. 아마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어느 감정이 더 컸을지.</p>	<p>없습니다.</p>	<p>P.141.45 '사람들은 눈을 감지 않으려고 기를 쓰지만, 나는 애초에 눈을 감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주인공의 당당함이 더 돋보여서 인상 깊었다. 애초에 눈을 감지 못한다는건 어떤 기분일까. 남들과 다르다는건 어떤 기분일지.</p>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1)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2)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3)	(활동지) 가장 인상 깊은 구절
<p>질문1.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은 아몬드가 살아난 것인가? 배경 : 본 책에서 언급된 '뇌의 착각' 인지, 뒤늦은 뇌 영역의 발달인지 궁금</p>	<p>질문2. 주인공의 '공감 불능'과 싸이코패스의 경우는 어떤 영역의 손상이 차이? 배경 : 작중 주인공을 싸이코패스라 놀리는 사람들이 나옴, 부정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p>	<p>질문3. 공감 능력의 부재가 과연 현대 사회에서 큰 결점으로 나타날까? 배경 : 현대 사회는 공감 불능 사회라고도 한다. 개인 주의가 만연하고 아무도 타인의 고통에 신경쓰지 않는 사회에서 과연 아몬드의 유무는 결정일까?</p>	<p>나에겐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누군가도 그것을 가졌다. 아무도 그것을 느낄 수는 없다. 그저 그것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다.</p>
<p>윤재는 정말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까.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데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p>	<p>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나, 하는 논의가 나오는데, 그들은 이해되어질 수 있는가. (그들의 힘겨운 상황은 이해되지만 또 한편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일반적이지 않기에) 그리고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가.</p>	<p>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이들에게서 가능성을 기대하며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약간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요) 그 한계는 어디까지 일지?</p>	<p>빵 굽는 박사랑 윤재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p>
<p>괴물인 내가 또 다른 괴물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또 다른 괴물이 누구일까?(이건 책을 읽으며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p>	<p>Q. 자신의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조언을 줄 수 있을까? 배경 :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다하던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주인공이 구멍가게의 주인 아저씨에게 말했을 때, 구멍가게 아저씨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p>	<p>193쪽에서 곤이가 자신이 늙었다고 했는데, 주인공도 곤이를 보며 늙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p>	<p>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p>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1)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2)	(활동지) 질문 및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3)	(활동지) 가장 인상 깊은 구절
<p>수학여행에서 돌아온 곤이가 주인공에게 너도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을 때 만약 주인공이 아몬드가 있었다라면 그렇지 않냐, 믿는다고 말했을까?:정직함과 착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때까지 많이 들어왔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솔직하게 좋고 거기서 신뢰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곤이가 주인공을 믿을 수 있었던 것도 주인공이 솔직하고 그 속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닐까? 그렇다면 주인공이 저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그건 둘의 관계에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p>	<p>수학여행에서 장난삼아 곤이를 도둑으로 몬 아이는, 그게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아이히만이 재판받을 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그건 유대인들의 고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인 것 같다. 곤이를 도둑으로 몰고 간 아이가 곤이가 그것에 상처받는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했더라도 그렇게 당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p>	<p>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 책에서는 곤이가 부모를 어렸을 적 부터 잃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일탈을 하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 악행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위를 저질렀는지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혹은 그런 사람만 피하면 나에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위안을 삼기 위해서.(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건 자기합리화 이지 않을까. 뚜렷하게 보이는 이유 없이 혹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원인 으로부터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p>	<p>난 누군가를 쉽게 재단하는 것을 경계한다(p130)</p>
<p>윤재가 깨어난엄마를 보고 처음느낀감정은 어땠을까?(감정이 생겼다고 말할수있는 시기에)</p>	<p>윤재가 곤이를 신경쓰는걸 우정을 느껴서일까?(나비에 대해서 공감하지</p>	<p>책에 구할수없는 인간이란 없다,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뿐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철썩 같은사람도 구할수있을까?(시종일관 미소를 띄었다는 부분에서</p>	<p>오늘 누구든지 웃고 있는사람은 나와함께 갈것입니다. /곤이는 착한애니까요</p>